

효율적 재정운영 · 봉사행정 '결실'

남원시청 예산동아리 '온새미로' 시민단체 선정 최우수 공무원상

남원시청 예산동아리인 온새미로(예산동아리 김춘성의 11명)가 시민단체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선정하는 2018년 최우수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세금납비를 막고 지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평가위원장 박재환 중앙대교수) 남원시의 '재정지킴이' 활동에서 탄생한 온새미로의 지방예산연구'에 수록된 효율적인 재정운영, 소통·봉사행정 등 예산동아리의 3년 동안 활동내역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시민단체(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예산동아리의 주요 활동을 보면 ▲2018년 한눈에 보는 남원시 살림살이 역사 리플릿 홍보 ▲공직자들이 어려워 하는 알기쉬운 예산이야기를 출간해 전직원과 공유 ▲2017년 지방교부세 감액 ZERO 실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나눔 봉사활동 ▲실과소·읍면동을 찾아가는 '예산 끝자토크' 운영으로 예산운영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시 애로사항 개선 ▲전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예산소통방 운영 ▲새우행정시스템과 행정전화를 통한 예산관련 내용 홍보 등으로 3년 동안 추진했던 활동이 전국최초로 시행되어 높은 평



남원시청 예산동아리인 온새미로가 시민단체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선정하는 2018년 최우수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가를 받았다.

남원시청 온새미로(예산동아리)는 실과소·읍면동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동아리로, 자체세원발굴, 세출절감 아이디어발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행정업무 개선 등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행정과 지식공유로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

범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가 지방재정 우수기관에 8번이나 선정된 것은 적극적인 예산분석과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예산절약 정신과 예산 효율화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결과"라고 극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세서울산업 전북지사, 맹아학교에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주)세서울산업 전북지사(이진주 지사장은)는 지난 11일 전북맹아학교(교장 직무 대행 정문수)를 찾아 시각 장애인, 인재 육성 장학금 100만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장학금은 이진주 주)세서울산업지사의 에세이집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중한다'를 발간 후 가진 출판 기념 사회헌사에서 주변 지인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이진주 주)세서울산업 전북지사장은 "직장 내 장애우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로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주 지사장은 "사예와 문인화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작은 나눔이 꿈을 키워 가는데 밑거름이 되어 나눔을 통한 희망 발을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전주우체국, 행복배달 소원 우체통 행사 개최

전주우체국은 지난 11일 소망지역아동센터에서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갖고 아동들의 소원편지 신청을 통해 물품, 정서적 지원 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는 아동들이 소원편지를 신청하고 물품, 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전 신청된 소원편지 16통을 선정, 아동 16여명에게 물품 150여만원의 상단을 지원했다.

박찬태 전주우체국국장은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산타가 된 것 같다"며, "우리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우체국은 우체국의 공적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임실군 새마을지도자대회 성료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지회장 김중수)는 12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2018 임실군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민 임실군수와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평화·공경 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구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 살림 운동의 실천활동을 결의하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성과 보고 영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 대회사, 축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에는 신유섭 관촌면협의회장과 김옥순 청운면 부녀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 등 총 2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2018년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 읍면으로는 최우수 지사면, 우수 성수면, 준우수 강진면이 선정됐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의 교육 내용으로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받아야 하고 미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화재에 대해 관계인이 지속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에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기계공고, IP Meister Program서 단체 우수학교 표창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원이 주최하는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 '제8기 IP Meister Program'에 참여한 학생 133명의 최종 아이디어 발표심사가 있었다.

심사 결과 전북기계공고 Enjoy Design2팀이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 Mold design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일 대전 KW 컨벤션 3층 공개홀에서 수료학생과 지도교사, 기술이전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외국인 유학생 귀금속 전공 체험 프로그램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귀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전북지역 유학생 귀금속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원광대와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우석대 등 지역선도대학유학생사업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5개 대학에서 200여 명의 유학생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익산 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익산 귀금속 산업 변천 과정 및 U턴 기업 정착에 관한 특강 시간을 갖고, 귀금속 제작 및 연구시설을 직접 견학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특히 익산 보석박물관 귀금속 전시관 관람 및 귀금속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 기회도 주어져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익산=우병희 기자

남원경찰, 금등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12일 금등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30여명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남원에서 발생한 어르신 교통사고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이륜차나 사발이 등 운전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교통안전가이드 판소리 영상 및 사고 동영상 등을 시청하고, 노인 교통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상호 경비교통과장은 "구석구석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전에 밝은 웃 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체육상 시상식... 전민재 · 최은지 · 김정순 등 수상

진안군 체육회(회장 이항로)는 11일 이항로 회장, 박주홍 수석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경의 명예를 높인 선수들과 우수단체에 진안 체육상을 체육회관에서 수여했다.

2018년 진안체육상은 개인부분 ▲육상 전민재(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수영 최은지(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파라골프 김정순(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조 설치훈(전북체중), ▲레슬링 김태휘(진안중), ▲ 육상 양재진(진안초), ▲육상 양명석(진안초) 선수가 수상했다.

우수단체는 ▲파라골프협회(회장 전경식), ▲광도협회(회장 이한섭), ▲몽돌면 체육회(회장 최상오)가 수상했다. 공로상은 한은숙 전 여성체육위원장이 수상했다.

체육회는 개인에게 후원지원금 30만원과 우수단체에 포상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특히 작은 거인 전민재 선수는 전국장애인체전 15년 연속 육상 3관왕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 보유자다. 그녀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육상에서도 2관왕에 오르는 등 대체불가 선수이기도 하다.

이항로 체육회장은 "올해 진안군 체육은 전국체전을 비롯한 40여개의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약 60여 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올렸다"면서 "내년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교실 확대 운영 등 군민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 용담면, 올해의 체육상 수상

진안군 용담면체육회(회장 최상오)가 지난 11일 진안군체육회가 주관한 2018년 진안군 체육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체육상을 수상했다.

용담면체육회는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선수단은 지난 9월 1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연습기간을 가졌다. 용담면향우회를 비롯한 이장단, 주민자치회와 각종 단체에서 선수단을 격려했다. 활다리기 선수단은 연습 여건이 불리하여 트럭에 밧줄을 매달아 호흡연습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면사무소 종무별 담당 직원들은 선수단이 연습경기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성실히 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용담면은 축구 1위를 비롯 7개 종목에서 입상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진안=우태민 기자

익산교육지원청 2018 진로교육 · 자유학기운영 동행나눔마당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2018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운영 동행나눔마당'을 초·중·고 교원, 교장(감), 학부모, 체육기관, 익산시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익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우수 진로체험기관으로 선정된 마한교육문화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창의융합교육연구원, 익산공공영양미디어센터, 한국폴리텍대학익산캠퍼스는 익산시청에서 현관 증정, 무지개전선식품체험관, (유)사각사각, 온몸에, 한소운캘리그래프, 한국전력공사익산지사는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감사패를 증정하여 앞으로 지자체 및 진로체험기관 협력을 통한 인프라 확대 및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2018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운영 동행나눔마당'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진로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의 아이들을 구성원이 함께 키운다는 마을교육공동체 철학을 확산시키고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수업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은성 기자